

경남 청년인구 1차 인구유출(교육) 원인 및 정책적 대응 방향¹⁾

01.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 실태조사 개요

02.

교육·취업-거주환경에
관한 인식

03.

향후 경남 거주 의향 및
필요 정책

04.

경남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방향

-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전체 청년인구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인구(만19세~39세 기준)는 2000년에 각각 48.0%, 52.0%로 비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인구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2023년에는 청년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경우가 55.2%, 비수도권 거주는 44.8%로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청년인구 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경남은 최근 청년인구 전 연령대에서 유출이 나타나고 있음.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청년인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 중 하나임. 또한 20대뿐만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청년인구 전 연령대에서 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을 제외한 전 16개 시도로 유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최근 2024년 경남의 청년인구 감소 속도는 다소 둔화되어 2019년 청년인구 감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경남을 떠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유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 현상의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함

01. 경남 청년인구 유출 원인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본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경남 유출 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도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청년인구 유출 원인 중 교육(대학 진학)으로 인한 1차 인구유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만 18세부터 만 39세 청년인구 중 경남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으로 대학(대학원)을 진학한 청년들(432명)의 1차 인구유출 원인을 조사함
- 한편, 경남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인구유출의 원인을 살펴봄. 해당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포함), 부산이며, 나머지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유출된 청년들의 세부적인 유출 원인과 실태를 살펴봄
- 재학생 432명 중 서울 거주 학생은 224명, 경기 83명, 부산 63명, 그 외 지역은 62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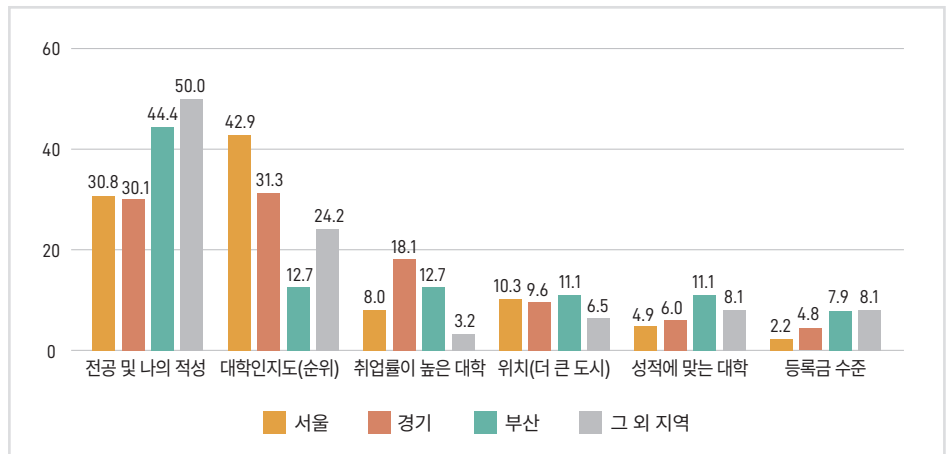
1) 본 내용은 2024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 지역별 청년인구 유출 원인 및 정책과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02.교육·취업·거주환경에 관한 인식

- 대학 진학시 고려 사항**
 - 대학(원) 진학시 1순위 고려사항은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공 및 나의 적성'이나 '대학인지도(순위)'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차이가 확인됨
 -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은 '대학인지도(순위)(42.9%)'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부산과 그 외 지역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는 '전공 및 나의 적성(44.4%, 50.0%)'을 가장 고려함. 경기 지역 재학생들은 타지역 유출 청년들보다 '취업률이 높은 대학(18.1%)'을 선호하였고, 그 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등록금 수준(8.1%)'을 고려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단위: %)

그림1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 진학시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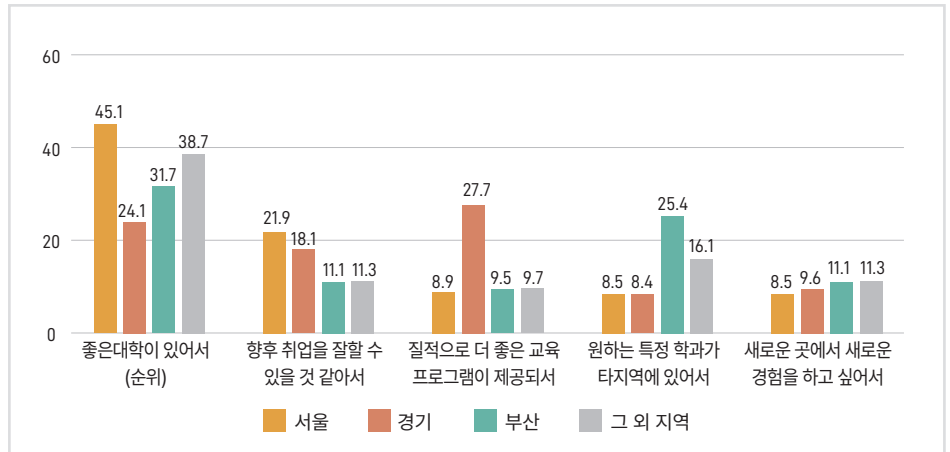


타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이유

- 서울에 거주 중인 경우, 타지역에 비해 '좋은 대학이 있어서', '향후 취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의 비율이 높으나 경기도는 '질적으로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어서'의 비율이 높게 확인됨. 한편, 부산은 '원하는 특정 학과가 타지역에 있어서'를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2 타지역으로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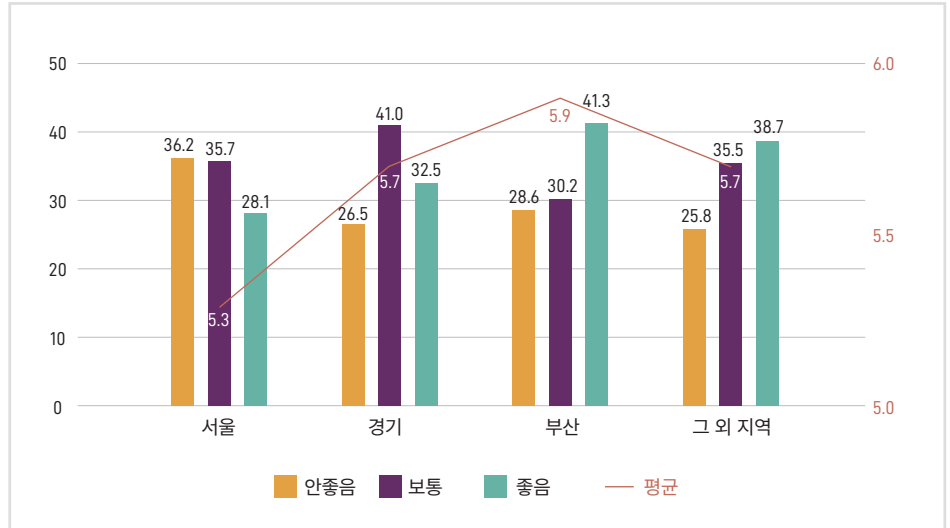


■ **경남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 경남의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5점 이상의(1~10점 기준) '보통' 수준을 보임
-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출 청년들 중 36.2%가 경남의 교육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는 41.3%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한편,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 지역 재학생이 41.0%로 가장 많음

(단위: %, 점)

그림3 경남 교육환경(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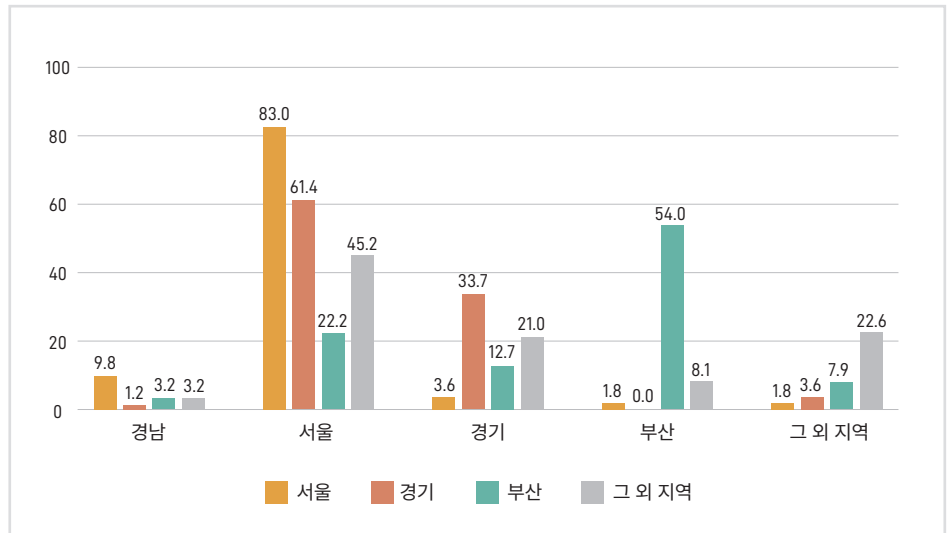


■ **향후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

- 서울, 경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향후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할 계획이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부산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부산에서의 취업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경남에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은 서울 거주자가 9.8%로 가장 높음

(단위: %)

그림4 향후 취업할 계획이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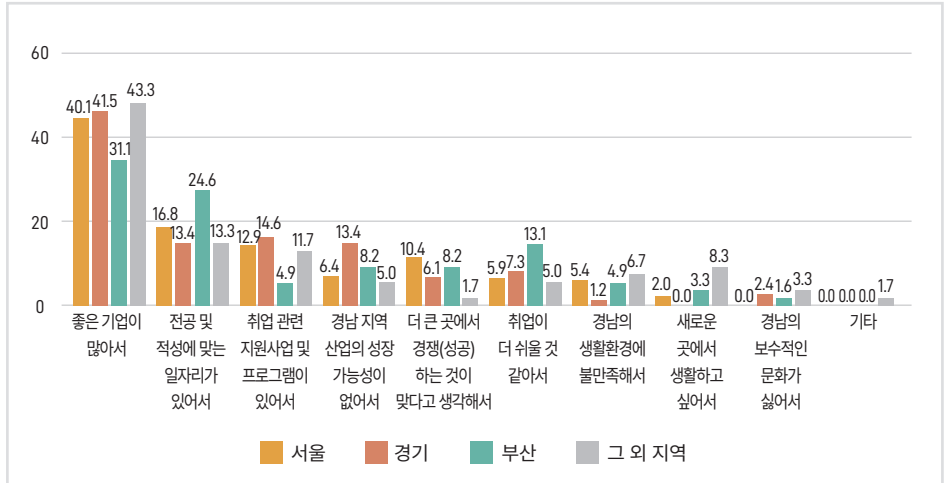


▪ 타지역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 경남이 아닌 타지역에 취업하려는 이유는 '좋은 기업이 많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음
- 경기도 거주자는 타시도에 비해 '경남 및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음. 서울 지역 거주자는 '더 큰 곳에서 경쟁(성공)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부산은 '전공 및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서', 그 외 지역은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의 비율이 타시도보다 높음

(단위: %)

그림5 타지역에서 취업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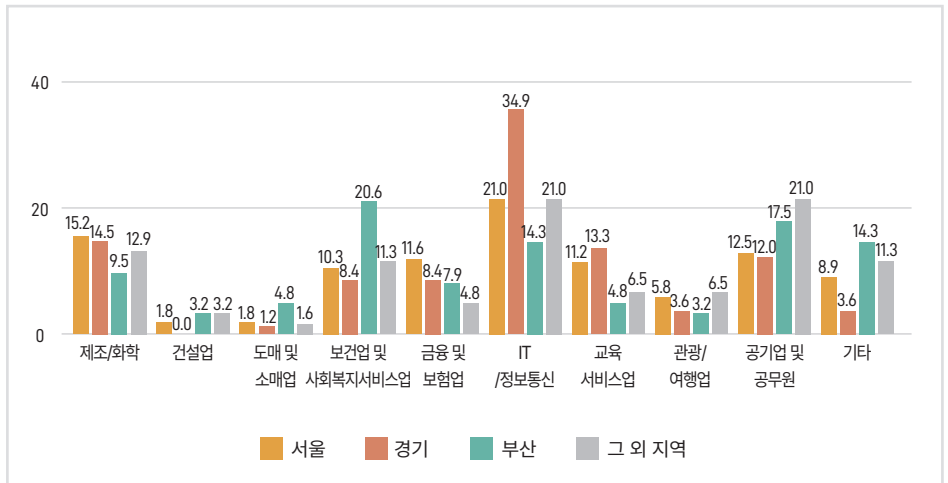


▪ 향후 종사 희망 업종

- 경남을 떠난 유출 청년들이 향후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 업종은 IT/정보통신이 가장 많으며, 공기업 혹은 공무원, 제조/화학 업종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기 지역 재학생들은 타지역보다 IT/정보통신 업종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확인됐으며, 부산 재학생들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또한 그 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는 공기업 및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

(단위: %)

그림6 향후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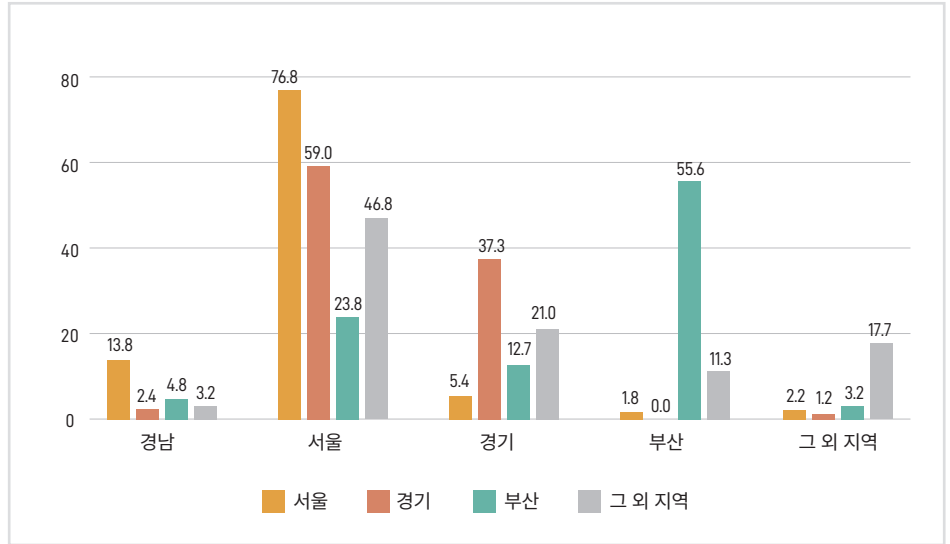


▪ **향후 희망하는 거주 지역**

- 경남을 떠난 청년들의 향후 희망 거주 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으나, 현 대학 소재지별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출 청년들의 희망 거주지는 부산이 55.6%로 가장 많고, 경남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비율은 현재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13.8%로 가장 많음

(단위: %)

그림7 향후 거주하고 싶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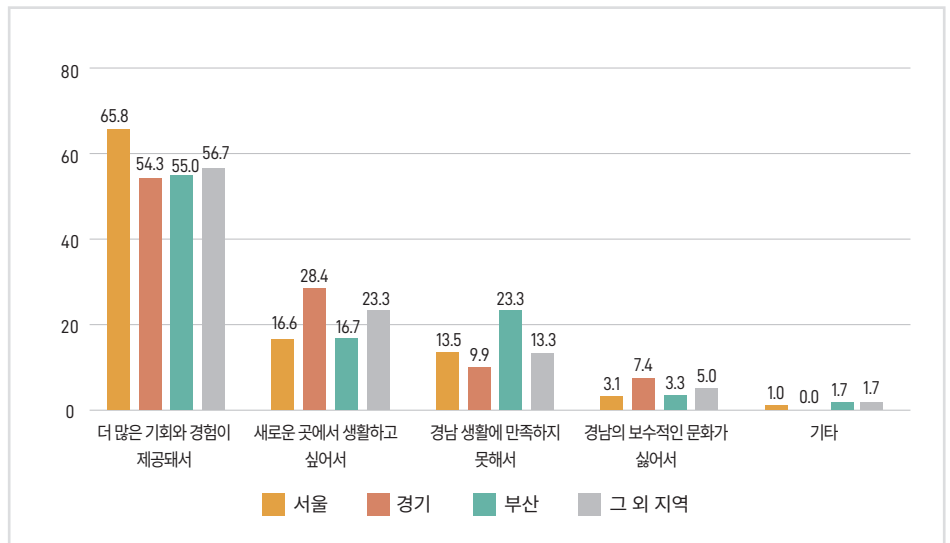


▪ **타지역 거주 희망 이유**

- 지역에 관계없이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이 제공돼서' 타지역의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됨
- 경기도와 그 외 지역 거주자들은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부산 거주자는 '경남의 생활환경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타시도에 비해 높게 확인됨

(단위: %)

그림8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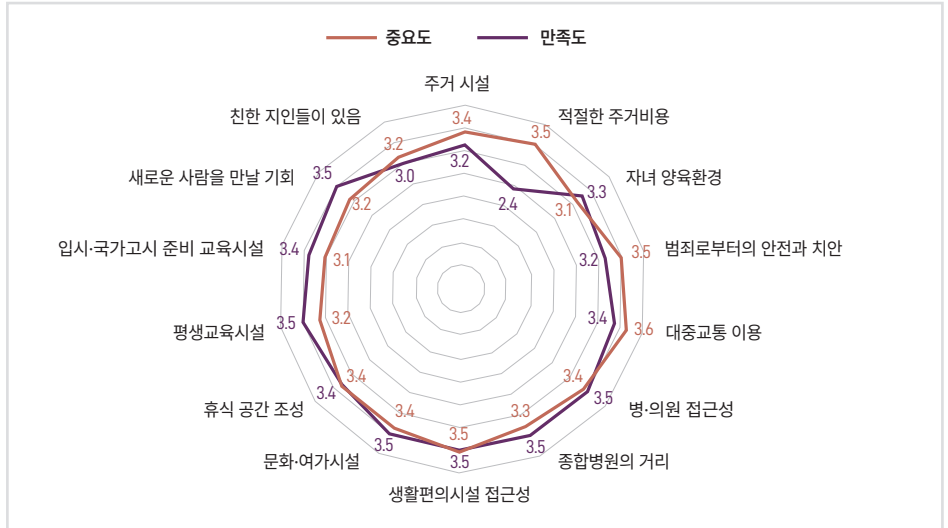


▪ 거주지 선택시 요소별 중요도 및 만족도 (5점 척도)

- 거주지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중교통 이용이 3.6점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어 주거비용, 안전 및 치안,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등이 3.5점으로 중요하게 나타남. 한편, 현 거주지의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주거비용을 제외한 대다수의 영역에서 만족도 및 중요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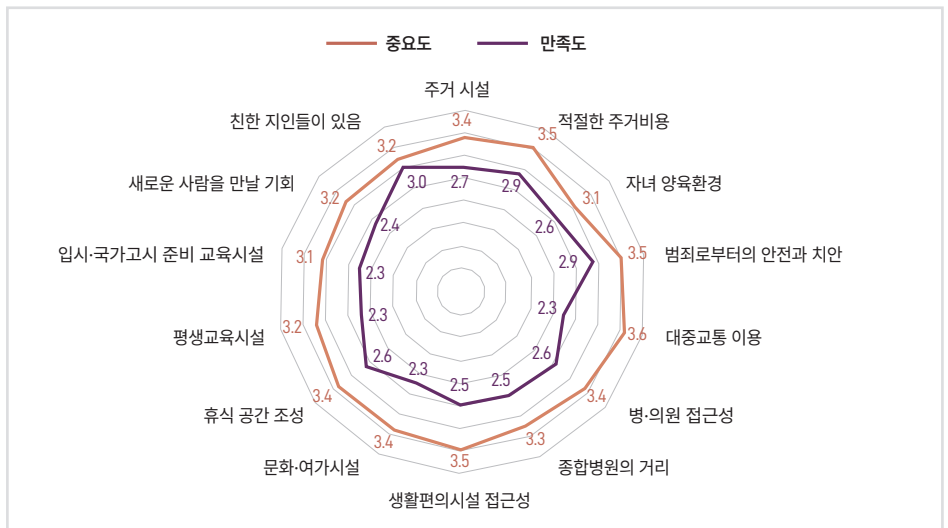
그림9 거주지 선택시 요소별 중요도 및 만족도(현 거주지역)



- 그러나 경남에서의 생활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중요도가 3.6점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2.3점으로 나타나, 중요도 대비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게 확인됨. 한편, 친한 지인들이 있다는 것에 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점)

그림10 거주지 선택시 요소별 중요도 및 만족도(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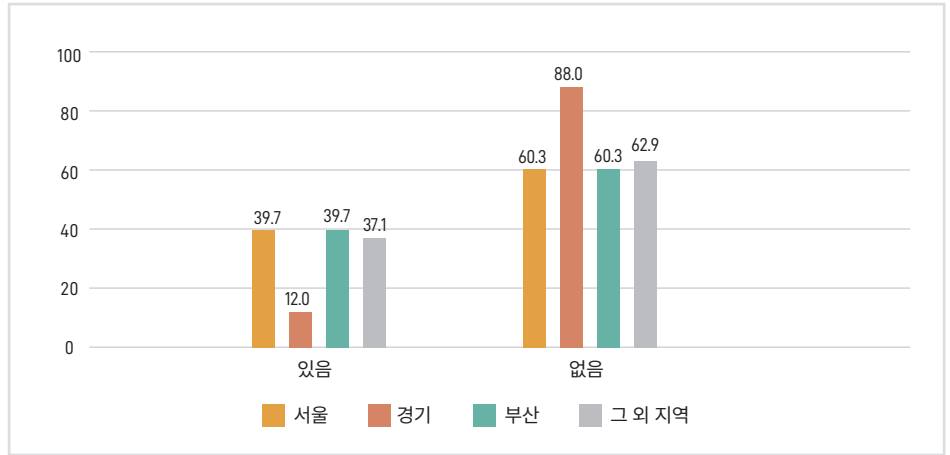
03. 향후 경남 거주 의향 및 필요 정책

▪ 향후 경남 거주 의향

- 모든 거주 지역에서 향후 경남으로 돌아올 의향이 낮게 나타남. 경기도 거주자는 88.0%, 그 외 지역 거주자는 62.9%, 서울과 부산 거주자는 60.3%가 향후 10년 이내 경남으로 돌아올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단위: %)

그림11 향후 10년 이내 경남에 돌아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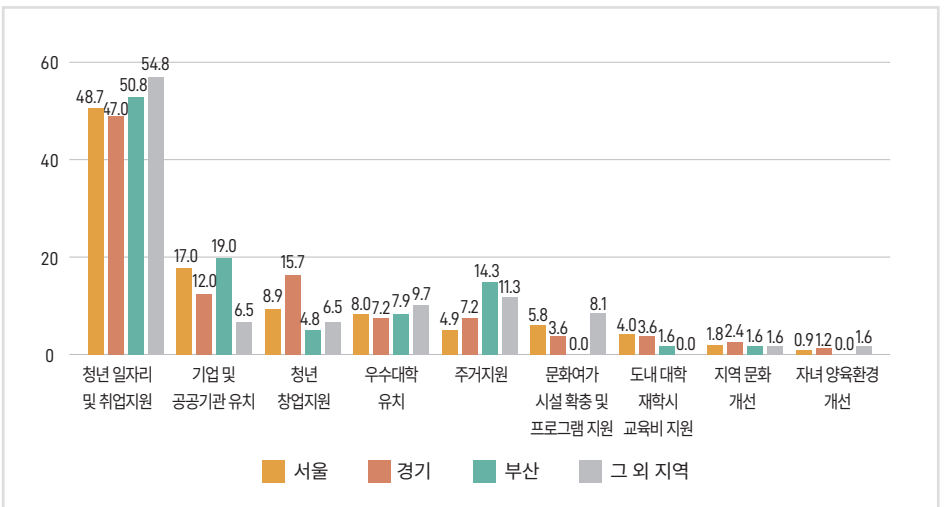
▪ 경남 정착을 위한 청년 정책

- 청년들의 경남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청년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이어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청년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 서울과 부산 지역에 재학 중인 경우는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기 지역 재학생은 '청년 창업 지원', 그리고 그 외 지역 대학 재학생은 '우수대학 유치' 및 '문화·여가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요구가 높게 확인됨

(단위: %)

그림12 청년들의 경남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04 경남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방향

■ 균형있고 우수한 대학교육 환경 조성

- 현재 경남은 지역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별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방위산업, ICT융합, 바이오, 조선산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성화 사업 추진 시 일반 기초학문뿐만 아니라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기초학문에 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시 제한된 전공 선택이 부여됨으로써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 같은 불균형한 학과 운영은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결국 경쟁력있는 대학(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산업인재 양성이나 특정 학과만이 우수한 대학이 아닌 다양한 학문이 존재하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경남 도내 대학이 향후 우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학별 특성화 육성 지원시 기초학문 학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제조업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농업, 교통, 물류,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일자리 조성을 통해 전공에 관계없이 많은 청년들이 경남에서 직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문화예술 및 서비스 관련 분야 일자리를 생성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자들을 흡수하여야 함
- 특히 경남은 문화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매우 부족한데,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관심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산업 투자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한편, 이 같은 여러 분야의 일자리 조성과 함께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거점 지역 조성과 대학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도내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함
- 또한 지역 청년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도내 중견 및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의 임금을 보전하고 전반적인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

■ 즐거움과 낭만 가득한 생활환경 조성

- 경남을 떠난 청년 대부분은 경남에서의 생활환경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 대중교통 이용을 비롯해 병의원과 생활편의시설 이용 전반에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확인됨. 청년들이 경남에 정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생활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 지역에서 청년들이 젊음을 즐기고 새로운 트렌드를 소비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거리(핫플레이스)를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문화 확산이 필요함